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초읽기

각료회의 “올 봄~여름 개시”

도쿄전력 방류 설비 올 봄 완공

일본 어민 단체 등 반발 여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관계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에 대해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어류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고 일부 일본 국민도 후쿠시마산 식품 구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방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관계자는 2일 외신 기자들과 만나 “작년 8월 방류 설비 공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방류를 앞두고 올봄 내로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고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 중이라고

방류 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하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거른 뒤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지지 않는다. 미량이지만 탄소14 등의 핵종도 ALPS로 처리한 물에 남는다.

일본 정부는 ALPS로 없앨 수 없는 삼중수소는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택했다. 원전 앞 바닷물과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당 1천500베크렐(Bq) 미만으로 만들어 원전 1km 앞바다에 내보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다 돼가지만, 후쿠시마현 수산물에서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한다.

일본 소비자청이 작년 2월 자국 소비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5%는 “후쿠시마산 식품을 사는 것을 망설인다”고 대답했다.

후쿠시마산 구매를 망설인다고 반응한 이들의 비율은 2014년 조사 때 19.6%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일본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후쿠시마 어민을 포함한 일본 어민 단체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이미지 악화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수산유관단체들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응단을 꾸렸다. 수협중앙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단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대책위원회를 각각 운영 중이다.

앞서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4%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명예살인’ 항의하는 이라크 여성 인권운동가들 5일(현지시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고등사법위원회 부근에서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명예살인’을 당한 유류버티바 알-알리(22)의 죽음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알리는 지난달 31일 이라크 남부 디와니아에서 자신이 타국에서 혼자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에게 의해 살해됐다. /연합뉴스

우크라 “서방 지원 무기 러 본토 공격 않겠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항상 우방국들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의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즈니코우 장관은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러시아군을 상대로만 서방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즈니코우 장관의 이날 언급은 미국이 최근 22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지원 패키지를 준비 중이며 지원 대상 중에는 사거리가 150km에 이르는 로켓 시스템도 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레즈니코우 장관은 이 보도 내용대로 장거리 로켓이 미국의 추가 지원 패키지에 포함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서방 무기 사용 범위를 자국 영토로 제한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의 인터뷰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연합뉴스

中, 쉽게 보일 정찰 풍선 일부러 날렸나?

미, 해상 추락 잔해 수거 나서

중 “민간 기상관측용 비행선”

미국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 영공에서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 비행체가 중국 것인 맞다면서도 정찰용이 아니라 민간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국은 전날 중국의 정찰풍선으로 추정하는 비행체를 F-22 스텔스 전투기 등 군 자산을 다수 동원해 격추했으며 이 비행체는 격추 후 바다로 떨어졌다.

한 당국자는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풍선 격추 직후에 군함 한 척이 현장에 도착했으며 잔해가 해수면에 도달하면서 수거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스클버스 2대 크기인 이 풍선의 잔해는 수심 47피트(약 14.3m) 위치에 떨어졌고 약 7마일

(11.3km)에 걸쳐 흩어져 있다고 AP·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미국방부는 풍선 잔해를 가능한 한 전량 수거해 영공 침입 목적과 중국의 정보수집 역량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거 작전이 며칠 내로 성공하면 중국의 첩보 능력 수준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반도체 등 중국의 군사용 첨단기술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미 정부의 전략이 충분하지를 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키우고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중국은 이 풍선이 정찰용이 아니라 기상관측에 주로 쓰이는 민간 비행선이 통제력을 잃고 미 영공에 진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과잉 대응’을 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풍선이 미국의 민감한 군사시설 다수가 위치한 지역을 지나갔다는 점에서 이런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연합뉴스



재판 받는 ‘홍콩 국보법 위반’ 범민주진영 인사들

홍콩 카오롱 반도에 위치한 치안법원에서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주진영 인사 47명에 대한 재판이 6일 열린 가운데 홍콩 시민들이 법원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칠레 대형 산불로 23명 사망 400km² 소실

남미 칠레 중남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1500명 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라우카니아주(州), 비오비오주, 뉴블레주 등에서 지난 3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이날 기준 총 400km²가 소실됐다. 서울시 전체 면적 대비 3분의2 수준이다. 카롤리나 토하 칠레 내무장관은 3일 하루에만

화재 총 7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칠레 당국은 5일 화재 87건을 진압 중이며 지금까지 148건이 진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화재로 최소 23명이 숨지고 97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800채가 피해를 보고 약 1천500명이 대피소로 이동했다.

칠레 당국은 아라우카니아주, 비오비오주, 뉴블레주 등 3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들 지

역은 인구 밀도는 낮지만 삼림 지대가 넓게 펼쳐진 곳이다.

스페인, 미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국가는 화재 진압을 위한 비행기와 소방 인력 지원에 나섰다.

아르헨티나는 소방 인력 64명과 소방차, 헬기를 제공했고 스페인은 화재 진압 인력 50명을 태운 비행기를 파견했다.

토하 내무장관은 이번 산불이 기후 변화에 대한 경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5일 칠레 일부 지역 온도는 섭씨 40도까지 치솟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